‘문화재 종합병원’ 건립 불사 시작된다

조계종, 8월 24일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기공

최초의 성보문화재 종합병원이 될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이 본격 시작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오는 8월 24일 오후 3시 위례신도시 종교용지 1부지서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기공식’을 개최한다.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위례신도시 종교용지 13,172㎡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건립된다. 국고와 자부담을 포함한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불사로 오는 2019년 완공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은 불교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현재 한국의 지정 문화재 중 70% 가량이 불교 성보문화재인 상황에서 체계적인 연구·보존을 위해서는 불교 자체 문화재 기관이 꼭 필요했다.

또한, 현행 문화재 정책이 지정문화재 중심으로 이뤄져 방치되고 있는 비지정 불교 문화재가 적지 않았다.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가 완공될 경우 지정뿐만 아니라 비지정 불교 문화재, 일반 성보까지 진단, 보존처리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대형불화’인 ‘괘불’을 전문으로 보존처리하는 기관으로 계획됐다. 현재 한국에는 괘불을 전문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관이 전무하다. 하지만 보존센터는 현재 가장 큰 괘불인 보은 법주사 괘불탱(16m)을 걸 수 있도록 설계됐다.

괘불 전문 복원·수리 기관에 걸맞게 건물 내부에는 전문 시설들이 들어선다. 〈불교문화유산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보존처리과정에 필요한 약품을 저장하는 창고부터 대형불화처리실·불화처리지원실·다목적보존처리실·지류/회화실까지 대형불화 보존과정에 필요한 주요 작업 공간이 배치될 예정이다.

보존센터 건립으로 얻어질 기대효과는 문화재 보존 전문 인력 양성이다. 불교계 전문 보존기관이 없어 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보존센터로 인해 향후 산학을 연계한 인력 양성·수급도 기대된다.

심주완 신도시TF팀장은 “이번 보존센터 건립으로 불교문화재에 대한 전문 진단, 진료, 복원 시스템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문화재 관련 종단 인력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부장 정현 스님은 “보존센터 건립을 통해 종교성과 문화재의 성격을 동시에 간직한 불교문화유산의 특수성에 맞는 보존처리 시설을 구축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8월 24일 열리는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기공식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김종진 문화재청장,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오수봉 하남시장 등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내부 조감도.

대형불화 전문 보존기관 목표

16m 괘불 걸고 보존처리 가능

건립 시 최대 민간 기관될 것

비지정 성보 문화재 보존 역점

불교계 문화재 인력 양성 기대

오는 2019년 상반기 완공 예정

강제징용희생자 고혼, 종교가 달래다

강제징용희생자 유해봉환위, 광화문서 추모제

일제강점기 일본 본토로 강제징용 돼 노역을 치르다 연고도 없이 죽어간 선조들의 넋을 종교계가 8.15광복절을 맞아 위로했다.

일제강제징용희생자 유해봉환위원회(상임위원장 무원)는 8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서 ‘일제강제징용희생자 유해봉환 국민추모제’를 거행하고, 7대 종교 추모의식을 올렸다.〈사진〉이 행사는 앞서 6일 봉환위가 일본 도쿄 재일동포 사찰 국평사서 일제강점기 무연고 노무동원자들의 유해 33구를 봉환해온 것에 따른 것이다. 행사에는 봉환위 관계자들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종교별 대표, 도쿄 국평사 주지 윤벽암 스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봉환위는 일본서 가져온 희생자 유해 33구를 제단에 모시고, 범패 ‘내포영산대재(대전불교사암연합회 집전)’로 고혼을 달랬다. 또한 KCRP서 각 종교별로 추모의식을 올렸다.

봉환위 상임위원장 무원 스님은 국민선언을 통해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희생된 유해가 일본, 사할린, 사이판, 괌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 방치된 채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국민들이 타향말리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부모형제들의 유해를 모셔올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자”고 당부했다.



국평사 주지 윤벽암 스님은 “군수공장과 비행장에서, 철길교량공사장과 탄광에서 무참하게 희생된 무주고혼이 100여만에 이른다”며 “오늘의 봉환이 일제식민지 역사를 청산하고, 동포들의 유해를 더 많이 찾아내 고향의 품에 안기도록 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봉환위가 일본서 봉환해온 유해 33구는 8월 16일 서울시립승화원에 안치됐다. 윤호섭 기자

“동물보호 주무부처 환경부 이관하라”

동물보호 및 시민사회 단체 60여 곳 기자회견

“동물을 식품화하고 가공생산을 관장하며 축산물 증대와 축산인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앞장서는 농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동물보호 및 시민사회 단체들이 수년간 동물복지 관련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할 것을 요청해왔음에도 불구, 7월 공포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복지 주무부서가 종전대로 농림축산식품부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축산 산업 증대를 목표로 운영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동물권단체케어(대표 박소연)·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동물보호 및 시민사회 단체 60여 곳은 8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생명 존중을 위한 동물보호 관련 주무부처 이관을 촉구했다.

이들은 “축산업을 주된 과제로 일하는 곳에서 어떻게 동물복지를 책임질 수 있느냐”면서 “동물보호를 위해 관련 주무부처를 환경부로 이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10년 간 동물보호법 강화를 가로막고 올바른 동물보호정책이 제도화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을 물으며 “그동안 동물복지를 위한 연구용역과 기초조사를 거의 실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개고기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환경부 등의 관여로 이뤄졌다”면서 “축산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와 감독조차 금기시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4대강 난개발로 잃어버린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하천 관리를 개발 위주 국토교통부서 보전 위주 환경부로 이관하려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추진하는 점을 예로 들며 동물복지 주무부처도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소연 동물권단체케어 대표는 “환경부로 옮기는 게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규제와 보전을 목표로 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도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정찬주 작가의 스님이야기

⑥ 모국어 사랑

사투리, 정겹지 아니한가

법정 스님께서 40대에 미리 써놓았던 유서 한 부분이다. 스님께서는 내생에도 다시 한반도에 태어나 모국어를 더 사랑하고 출가 사문이 되어 못다한 일들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남겼다. 유서 한 부분이지만 모국어란 살가운 말이 오늘은 내 가슴에 꽂힌다. 문단 말석에 앉은 소설가로서 글을 밥 삼아 일 삼아 써온 사람이어서 더욱 그런지 모른다.

내가 샘터사에 입사했을 때 편집주간이었던 분이 “스님의 두 번째 수필집 제목을 입석자(立席者)로 할 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님께서 지은 ‘입석자’를 샘터사 김재순 이사장이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바꾸어 제시하자,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한다. 아마도 이때부터 스님께서는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더 갖지 않았나 싶다.

이후 스님의 책은 실무담당자인 내가 불일암을 오가면서 펴냈던 것 같다. 〈텅 빈 충만〉〈버리고 떠나기〉〈물소리 바람소리〉〈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말과 침묵〉〈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등등이다. 〈텅 빈 충만〉은 선가의 용어인 진공묘유(眞空妙有)를 푼 우리말이다. 참으로 비었는데 묘하게도 가득 차 있다는 뜻이 진공묘유이다. 〈버리고 떠나기〉도 마찬가지다. 구름처럼 물처럼 떠돈다고 하여 수행자를 운수납자(雲水衲子)라고 하지 않은가. 〈물소리 바람소리〉도 자연의 무정설법(無情說法)을 편하고 쉬운 우리말로 환치한 것이다.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자연의 훼손을 경고한 제목이고, 다만 〈샘터〉 산방한담 난에 연재된 원고는 별 수 없이 그대로 〈산방한담〉이란 책이름으로 발간했는데 독자들의 반응이 크게 떨어졌던 것으로 기억난다.

한편, 스님의 〈인도기행〉은 나로서는 결코 잊지 못할 책이다. 스님께서 인도로 떠나시기 전이었다. 나는 스님을 을지로 상가로 모시고 가서 작고 가벼운 카메라 한 대를 사드렸던 것이다. 스님께서 고르신 제품은 저가의 올림푸스 자동카메라였다. 당시 〈인도기행〉은 스님 특유의 사유가 밴 글과 스님께서 흥미롭게 찍은 소박한 사진들로 채워진 여행기였는데, 어느 날 어떤 사진가의 강렬한 사진으로 바뀌


일러스트·정윤경

어 나를 실망시킨 적이 있다. 대상을 바라보는 스님의 탐구밀도와 내 작은 정성이 빛을 잃어버린 듯해서였다.

스님께서 한 번은 내게 “무염거사, 박경리 씨가 〈토지〉에 경상도 사투리를 써서 실감나게 한 것처럼 무염거사도 전라도 사투리로 써 봐요”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때까지 나는 소설을 쓸 때 습관적으로 표준말만 구사했는데 스님의 권유 덕분에 영감이 하나 스치는 듯했다.

결국 나는 정약용의 유배생활을 그린 장편소설 〈다산의 사랑〉, 영웅이 아닌 인간 이순신을 그린 대하소설 〈이순신의 7년〉에 전라도는 물론이고 충청도, 경상도 사투리를 소개하면서 토속어가 얼마나 정겨운지를 깨달았다. 모국어의 소중함과 사투리의 가치를 새삼 깨우쳐주신 스님께 감사를 드린다.

진관사, 국행수륙재 8월 27일 입재

10월 15일까지 49일간

조선시대 왕실에서 국가의 평안을 기원하던 국행수륙재가 서울 삼각산 진관사서 거행된다.

진관사(주지 계호)는 (사)진관사국행수륙재보존회와 함께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경내서 중요무형문화재 제126호 진관사국행수륙재를 봉행한다.

진관사는 조선시대에 왕실 주도의 대규모 수륙재를 주로 담당하였던 중심 사찰이었다. 당시 의례문헌인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와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를 바탕으로 수륙재를 설행(設行)하고 있으며, 의식·설단·장엄 등 수륙재의 여러 분야에 대한 전승이 이뤄지고 있다. 윤호섭 기자

